

*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자신을 성찰하고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라.

- 108 자재어 중에서 -

세원소식지

www.sewonsa.com

*펴낸이 : 정 운

*편집인 : 유 진

*펴낸곳 : 세 원 사

*인쇄 : 형제인쇄·광고

정토신앙, 왜 믿어야 하는가

정 운 (세원사 주지)

‘정토’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마경』 『대품반야경』 『법화경』 등의 대승 경전에 나타나는 ‘정불국토’(淨佛國土,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경우 ‘정토’는 중생을 구제하는 일[成就衆生]과 더불어 보살의 2대 과업 중의 하나가 됩니다. ‘정토’는 보살행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정토’는 청정한 땅, 곧 부처님이 머무르고 있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정토는 산스크리트 ‘buddha-kṣetra’를 번역한 말인데, ‘buddha-kṣetra’는 정확히 ‘불토(佛土)’란 뜻입니다. 불국토(佛國土) 혹은 불국(佛國)으로 옮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니 ‘세계’로서의 정토는 불(국)토와 전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청정함을 불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여겨서 정토라고 했을 겁니다.

대승불교가 흥기한 이래,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나라인 정토에 태어나기를 희구하였고, 정토에 대한 믿음과 그에 기반한 행위를 정토 신앙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원어에 입각하면 불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겠지만, 이미 정토 신앙이란 말이 공인되어 통용되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괴로움의 소멸, 열반의 성취 등 불교의 목적은 경전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제시됩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성불(成佛)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성불과 동시에 불국토도 건립됩니다. 성불 수기(授記)의 벽두에 부처님으로서의 이름[佛名號]에 이어 국토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성불과 불국토 건설은 깨달음이라는 사건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 숫자만큼의 정토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부동여래(不動如來 Akṣobhya-tathāgata 阿閼佛)의 묘희(妙喜 Abhirati) 세계, 약사(藥師 Bhaiṣajyaguru)여래의 유리광(琉璃光 vaiḍūrya-prabha) 정토 등이 그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들이지요.

그런 정토들은 모두 타방(他方)에 위치합니다.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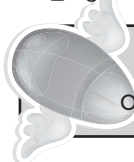
를 관통하는 원칙 중에 ‘하나의 세계에는 한 분의 부처님’이라는 1세1불(一世一佛)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지금 이곳에 또 다른 부처님이 오실 수 없고, 당연히 또 다른 정토도 시설될 수 없습니다. 5탁(五濁)에 뒤덮힌 이 좋지 않은 세상[惡世]이, 고단한 삶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사바(娑婆 saḥā)세계의 정체가 사실은 ‘정토’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고 순간의 쾌락에 탐닉하는 저급한 세태가 만연하고,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무도한 작태가 횡행하여 이 땅은 예토(穢土, 더러운 땅)라 불립니다. 그런 예토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심으로써 부처님 세계, 즉 정토로 바뀌었고, ‘사바’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화려한 일상을 누려도 사랑받지 못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반면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님이 있으면 지친 하루를 마치고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한없이 의지할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이 땅은 이미 정토입니다.

그렇다면 사바 정토에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바세계를 아름답게 장엄(莊嚴)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채색하거나 꽃으로 꾸미는 것만이 아닙니다. 3보(三寶)를 믿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며 만족해서 보시 공양을 멈춰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틈틈이나 마기도와 수행, 전법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들이야말로 진정한 장엄입니다. ‘불국토를 청정하게 한다.’는 문구와 통하니까 ‘정토에서 정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바세계에서 행하는 작은 선행이 다른 정토에서 천년 간 행하는 선보다 훨씬 공덕이 크다는 『무량수경(無量壽經)』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바세계에는 온갖 역경과 번뇌가 넘쳐흐릅니다. 그래서 가가



www.sewonsa.com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세원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많은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은 주변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만을 돌보기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선을 행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고요. 그만큼 선행의 가치가 높고 공덕의 크기도 월등한 세계인 것이지요. 그러나 공덕을 쌓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곳, 조그만 선이 큰 공덕이 되는 곳, 그래서 제법 힘들긴 해도 살아볼 만한 곳, 불국정도 '사바'입니다. 좋고 또 좋은 일입니다.

'정토' 하면 누구나 '극락(極樂 sukḥāvātī)'을 떠올립니다. 그 정도로 아미타불의 서방(西方) 극락은 정토 신앙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가 정토 신앙을 대표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극락은 오로지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다." "극락의 장엄함은 다른 불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승하다." "그 세계에 왕생하는 방법이 쉽다." 라는 등의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불이 극락정토 건립을 성불의 전제로 삼고 있는 그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부처님에게 정토(불국토)의 건립은 성불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불 수행에 매진하는 것만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불토를 미리 구상하고 설계하는 경우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은 달랐습니다.

부처님이 보살 시절에 일으킨 서원을 본원(本願 pūrva-praṇidhāna), 혹은 숙원(宿願)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은 먼 옛날 법장(法藏 Dharmākara) 비구였을 때 48대원을 세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가 중생 구제에 특화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나라에 지옥과 아귀·축생이 있다면 저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제1원)

"만일 그 나라의 사람과 천신들이 반드시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제2원)

"만일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나 일생보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겠습니다."(제22원)('무량수경')

이처럼 아미타불에게는 중생 구제의 염원과 그 염원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정토의 건립이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성불은 오히려 뒷전인 듯한 느낌마저 없잖아 있습니다.

자신의 성불보다 중생 구제를 우선하는 자세는 대승 보살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총원(總願)으로 거론되는 사후서원에서 중생 구제를 불도 성취보다 앞세웁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멸도(滅度)에 들지 않겠노라는 결의도 여러 대승 경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극락정토처럼 세심하게 마련

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이 풍족하게 제공되고, 환경과 기후는 쾌적하고 안온합니다. 삶을 힘겹게 하는 악조건들은 애초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물소리 바람소리조차 범문을 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세음·대세지보살을 위시한 무수한 선지식들이 벗이 되어 함께 합니다.

심지어 극락의 사람들은 아미타불과 마찬가지로 수명에 한량이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극락의 중생들이 열반을 성취하고 불퇴전에 이르며 일생보처의 자리에 오르는 일은 무조건 확정된 귀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라 한들, 무릉도원이라 한들, 어찌 감히 여기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가 볼 만한 곳, 반드시 가야 할 곳, 참 좋은 곳, 불국정도 극락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극락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임종 후에야 가는 곳이고, 공간적으로는 아득한 우주 저편에 있다고 설해지니, 지금 이곳에서는 그 실재성(實在性)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극락이 없다면, 그에 대한 신앙은 헛된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브라만교를 부정하신 이유 중의 하나도, 브라만(Brahmā 梵天)이 있다고 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본적이 없는 범천을 신앙하고 찬송하는 행위를 '여인과 사귀다'고 하면서 그 여인의 용모나 사는 곳, 집안 사정 등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에 빗대며, '정말 우스운 일'이라 일축하셨지요.('장아함', '삼명경(三明經)')

극락의 실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신앙의 영역'이라 논어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를 묻지 않는 신앙을 맹신(盲信)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나 현실에서나 맹신의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큼니다. 1978년, 9백여 명의 죽음을 몰고 온 남아메리카 가이아나의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199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미선교회의 휴거(擄擧) 소동은 술한 가정을 파탄 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의 목숨마저 앗아갔습니다. 신앙을 고집하여 병원 치료를 거부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도 낫설지 않습니다. 맹신은 일종의 망상(妄想)과 같습니다.

불교는 맹신을 거부하는 유일한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극락정토 신앙이 결코 어리석은 맹신이 아님을 밝혀야 하는 당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범천(梵天)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듯이 극락의 실재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범천의 존재는 그

가능성조차 인정할 수 없지만, 극락은 '실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천은 막연한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지만, 극락은 법장비구라는 인물에 의해 건립된 세계여서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없는' 존재인 범천은 세계는커녕 먼지 한 톨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있었던 인간'인 법장비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미미하기 그지없는 한낱 인간이 전대미문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발상과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짚어 보면, 전혀 이치에 어긋난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의지적 작용인 업(業)이 세상을 이끌어난다고 설파합니다. 우주의 생성·유지·소멸 또한 중생들이 함께 힘 기울인 노력, 즉 공업(共業)에 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생의 업행과 보살의 원행(願行)은, '의지'에 바탕을 둔 행위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력(業力)에 의한 중생 세계의 형성이 가능하다면 원력에 의한 부처 세계(淨土)의 건립 역시 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도 '중생들의 행업'과 더불어 '여래의 위신력'과 '보살의 물러나지 않는 행원'이 세계를 이루는 원인으로 『세계성취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억의 중생들이 수억 년간 힘을 들여 세계를 형성했다면, 한 명의 보살이 수천억 년 혹은 그 수천억 배가 되는 세월을 거친 끝에 세계를 건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건립된 세계의 모습은 원인이 된 서원의 내용과 잘 부합할 것입니다. 인과는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비록 당장에 극락의 실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극락이 존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생각 없이 극락이 없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과, 있을 수 있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태도입니다. 전자가 무지요 망상이요 끝내 허망한 맹신이라면, 후자는 확인해 볼 만한 가치를 지닌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無上正等覺 anuttara-samyak-sambodhi)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중생으로서의 그 깨달음의 실체를 판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설을 들어보는 일이 먼저인데,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귀를 기울일 리가 없겠지요.

합리적·비판적인 사고는 독선이나 맹신을 방지해 줍니다. 그러나 현재 본인이 갖춘 식견만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재단(裁斷)하는 행위 또한 오만(傲慢)이요 독선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견해를 만났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냥 돌아서 버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깊고 새로운 깨달음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불신(不信)은 맹신만큼 위험하고 안타까운 태도입니다.

『아함경』에서는 불법승 3보와 계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四不壞淨)이 줄기차게 강조됩니다. 『화엄경』에서 현수보살은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信爲道源功德母)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떠난 5천 명 제자들에게 대한 일화를 신고 있지요. 모두가 믿음의 중요성을 선양하고 불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이상, 믿음은 앞을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불은 마음속 미지(未知)의 영역을 채우고 있던 믿음이 온전히 앎으로 전환되어 충만한 상태(一切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타의 종교와 달리, 불교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으로 일단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깨달음은, 믿음의 내용을 스스로 증명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진위(眞僞)를 앎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체계는 '오직 믿음!'을 외치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신(神)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대상을 아예 불가해(不可解)한 존재로 두고, 그에 대한 이해의 노력 자체를 죄악시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에서만 가능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는 믿음으로써 불신을 떠나고 깨달음으로써 맹신을 타파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믿음의 잔재를 털어내고 궁극의 앎을 성취한 부처님조차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잡아함경』1188 「존중경」 깨달음을 향한 전제로서의 믿음은 차치하고, 맹신과 불신의 양극단을 떠난 합당한 믿음은 행복한 삶의 필요조건임이 틀림없습니다. 무턱대고 믿거나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삶은 암울하고 피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정토 신앙은 믿을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으니 믿을 만합니다. 믿어서 나를 안은케 하니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는 진실로 증명될 수 있으니 믿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정토 신앙은 아미타불과 극락을 향한 우리들의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향한 아미타불의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허물투성이인 나의 믿음은, 내 삶의 끝자락에서 아미타불을 위시한 극락 성중(聖衆)이 나를 맞이하러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믿음의 수백 수천만 배 이상의 복락으로 돌아옵니다. 복되고 복되며, 고맙고 고마울 뿐입니다. ☸



세원소식

후원금 현황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지출	
이정숙	2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000
유성운	30,000	박인자	50,000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50,000
박순애	30,000	유진스님	20,000	보령시한국청소년연합회	500,000
이장희	50,000	이영구	50,000		
강상훈	20,000	이선엽	30,000		
이주연	20,000	김현준	10,000		
부성보	50,000	광명전기	50,000		
유상숙	50,000	광명미용실	50,000		
박명호	30,000	이건립	20,000		
이용렬	50,000	이경화	50,000		
양정하	30,000	김중성	50,000		
오희순	30,000	곽완서	20,000		
박연우	30,000	배두성	20,000		
강진아	2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김규태	20,000				
유홍주	30,000				
권송은	20,000				
이원호	50,000				
최창복	50,000				
한명현	30,000				
최부호	50,000				
조명연	50,000				
유정현	10,000				
서동창	10,000	계	1,280,000	계	600,000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6년 2월 13일~2026년 3월 16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정)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기부금 지출입니다.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매주 화요일 : "신학기 찾아가는 1388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검정고시대비학습반" "신학기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청소년 마음건강 캠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검정고시대비반" "자원봉사 소양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 매주 화요일 : "동아리사업 지원 홍보"
- ◆ 매주 수요일 : "미니카제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목공소품만들기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건축물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케이크만들기" "도자기만들기" "효사랑카네이션" "드림교실" "기타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 매주 화, 목요일 감시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